**일본사회의 관료제와 천황제의 특징**

21X0X9X9 김X민

**일본 관료제의 특징**

**행정지도 :**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사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강권적으로 명령·지도·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는 근거가 없지만 행정기관이 희망하는 쪽으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행동해주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품의제 :** 품의제(稟儀制)란 관료제의 말단 사무관에 의해 기안된 품의서가 밑에서부터 계통적 조직구조를 따라 순차적으로 상급자에게 회람되어 최종결재권자에게 도달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즉 기안된 결재서류가 계원, 계장, 과장보좌, 과장, 부장, 국장, 사무차관, 정무차관, 대신으로 이어지는 내부결재 계통을 따라 회람되면서 최종정책으로 결정되는 정책결정 방식을 말한다.

일본의 근대적 관료제는 메이지 정부에 의해 독일이 통일되기 전인 프러시아의 행정 조직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식 국정 운영과 부국강병 정책에 필요한 전문적 관료제를 운영했다. 천황주권제에 따라 관료는 국민의 공복이기보다 천황에 절대 충성하는 관리였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  
  
193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관료들은 일본 군국주의 체제에 적극 참여했다. 2차 세계대전 후 현행 평화헌법에서 관료의 지위는 국민의 공복으로 전환되었다. 관료의 정치 중립성이 보장되었고, 50년대 중반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일본 관료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은 일본 국민들로부터 높은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국가 중심,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전통은 전후에도 계속되었다.

일본의 관료제는 국가공무원, 지방자치체의 지방공무원, 공공기업체의 직원 등으로 채용되고 있다. 공무원은 수상과 내각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대다수에게는 노동쟁의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은 1948년 국가 행정 조직법에서 정한 성(省)과 성에 준하는 기관인 부(府), 청(庁), 위원회 등의 4개의 행정기관에서 임명된 공무원을 의미한다.

**일본의 천황제**

**1.개요**

**천황(天皇)**은 일본의 군주를 의미하는 칭호로, 현 일본의 명목상 상징적 국가원수이다.  
  
역사적으로는 일본 전통 종교 신토의 주신인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숭배하는 교파의 대표였던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국가신토의 사실상 교주이자 일본 제국의 대원수로 추대되기도 하였으나, 패전 이후 새롭게 시행된 현 일본국 헌법에서는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에 국가원수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원수가 수행하는 주요 행위의 권한이 **상징적**으로만 천황에게 주어져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대내외에서는 천황을 실질적인 '일본의 국가원수'로 본다. 해외에서도 천황을 일본의 상징적 국가원수로 보고 있다. 과거 일본에서는 천황 외에도 황제, 천자, 미카도() 등의 칭호가 통용됐으나 현재는 "천황()"으로 공식적인 명칭이 통일된 상태이다.

'천황'을 한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하늘의 황제, 중세시대 이후로 도교의 민간신앙중에 인기 있는 신중 하나인 옥황상제를 뜻한다. 그러나 일본의 건국신화에서도 황실을 신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 신 그 자체라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천황의 지위를 과도하게 높여 살아 있는 신 그 자체로 모시는 사상은 메이지 유신 후에 나온 것이며, 이당시 민중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인지도 있는 중국의 민간신앙 등을 받아들여 자국신화와 기타설정과 섞어 명칭을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전에는 동아시아 주류 문화권과 격절된 섬나라의 이점을 살려 독자적으로 칭제하는 정도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전까지 일본의 국교였던 국가신토에서는 **현인신(現人神)**으로 숭배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식민사관'과 관련되어 일제 군국주의 시대의 대명사로도 쓰인다.

**2. 칭호**

일본어 발음은 天皇(천황)의 한자 음독인 てんのう(Tennō), 영어로는 흔히 Emperor of Japan으로 옮긴다. 영미권 말고도 다른 국가에서도 황제 칭호를 붙이는데 특히 태국에서는 자국 국왕은 그냥 라자(왕)라고 부르면서도 일본 천황에 대해서는 마하라자(황제)라고 칭한다. 대한제국, 독일제국, 제정 러시아, 프랑스 제국, 중국 등 다른 황제국의 황제들이 모두 역사를 거치며 사라져버린 오늘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Emperor로 불리는 군주이다.  
  
현대 일반적인 일본인들이 천황을 언급할 때는 '텐노(天皇)' 혹은 '텐노헤이카(天皇陛下, 천황폐하)'라고 하며, 뉴스나 신문사에서는 존칭을 써서 '텐노헤이카(天皇陛下)' 또는 줄여서 헤이카(陛下)라고 한다. 간혹 옛날 명칭인 미카도(帝) 혹은 덴시사마(天子様)로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킨조(今上, 금상)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재위 중인 임금을 부르는 말로 군주정 시대의 한국의 '주상 전하'처럼 중국에서도 자국 임금에 대해 쓰던 말이다. 반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지간히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일상적으로 천황을 언급할 때는 대부분 '텐노'라고만 하며, 반대로 상당히 반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연설 등 공식적인 발언에서는 대부분 '텐노헤이카'(天皇陛下)라고 한다.

**3. 어원**

사실 천황이라는 명칭은 건국 초기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고대 일본의 지배자들의 명칭은 오키미(大王, 大君) 등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치천하대왕, 스메라미코토라는 명칭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이 스메라미코토의 의미를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이 천황(天皇)이다. 따라서 '스메라미코토'라고 읽었지 '텐노'라고 읽지는 않았다.  
  
천황이라는 표기를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속설로는 중국의 황제인 천자(天子)보다 높이려는 의도로 썼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천황은 중국 신화에 나오는 주신인 옥황상제를 일컫는다. 일본서기에 쇼토쿠 태자가 오노노 이모코를 수나라에 파견했을 때 당시의 서찰의 서두에 "동천황이 서황제께 보냅니다"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볼 때 '천황'이라는 단어 자체를 원래 일본에서 썼을지도 모른다. 사실 천황이 '천신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원래부터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이상한 건 아니다.  
  
도교에서는 천황(天皇), 지황(地皇) 등 방위구분이 있었으며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대신들로부터 모든 황의 가운데에 있는 태황(泰皇)이라는 명칭을 건의받았으나 황제라는 새로운 호칭을 만들었다. 중국의 도교 신앙이 일본에 영향을 미치면서 천황이라는 호칭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부에서는 미카도(帝)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스메라미코토'라는 명칭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한자어를 발음대로 읽은 천황보다 더 '정통적인' 호칭인 셈이다. 천황이라고 읽기 시작한 것은 무로마치 막부 시대 황실이 권력 투쟁에서 완전히 밀려나면서 스메라미코토라는 의미가 잊혀져간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흑선 사건 이후 일본의 군주를 부를때 이슬람권의 술탄, 독일어권의 카이저, 러시아의 차르를 부르듯이 일본의 미카도(Mikado of Japan)라고 부르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잘 그러지 않는 듯하다. 요즘에는 그냥 Emperor of Japan이라고 하는 추세.  
  
메이지 유신 후 천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전에는 천황은 여러 명칭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지는 못했다. 미카도 등의 다른 명칭들을 제치고 천황이라는 명칭이 낙점된 이유는 바로 '천황'이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의 지배자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4. 관련 신화**

역사가 오래된 나라라면 흔히 보이는 '군주를 신격화하려는' 특성으로 인해서 천황은 일본 신화의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의 자손(天照大御神の子孫)으로 설정되어 있다.

**5. 역사**

천황은 명목상으로는 임금이지만 실제 권력은 없는 상징적인 허수아비였던 기간이 긴 것으로 유명하다. 사실 일본 역사 초창기에는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천황이 실제 군주로서 통치를 했고, 아스카 시대에 율령을 도입했다. 즉, 일본도 고대에는 동시대 백제나 신라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임금이 직접 율령에 의한 정치를 하는 고대국가였다. 그러나 헤이안 시대 중기인 858년, 후지와라노 요시후사(藤原良房)이래로 후지와라씨가 외척으로 권력을 독점하면서 귀족정치로 변모하며, 국풍이 발달하면서 한국이나 중국과의 교류도 감소한다. 이 때부터 중앙집권이 약화되고 일본 특유의 이중적인 권력체계가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약 1천년 동안 대정봉환과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의 천황은 실제 정치는 셋칸, 간파쿠, 쇼군 등에게 위임하고 명목상 일본 정부인 조정의 수장으로 수도인 교토나 직할 영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직접적인 통치를 했다. 다들 알다시피 무사정권은 천황 자체를 쫓아낸다거나 찬탈하지는 않고 '신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그대로 두었는데 타이라노 마사카도는 교토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반도 땅에서 거병해 본인을 신황이라 일컬으며 천황이 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결국 조정에서 보낸 쇼군의 군대에 토벌당해서 죽었다. 또한 현대에는 옴진리교의 아사하라 쇼코가 **천황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2018년 7월 6일 오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6. 지위**

천황은 일본의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영국 국왕과 비슷한, **비록 권력은 없지만 신성 불가침적인 존재**이며 언론에서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카메이도 악취사건 문건에도 기술돼있지만 일본의 사이비종교 화학테러집단 옴진리교가 이런 천황을 독극물로 암살하려다 발각돼 일본 전체에서 아예 옴진리교가 퇴출을 당한 것이다. 일본 만화나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황실을 소재로 한 건 마코 공주를 제외하면 거의 보기가 힘들다. 1990년, 아키히토 천황의 차남 부부인 후미히토 친왕과 키코 비 결혼을 기념하여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긴 하다.

물론 상징이기 때문에 일본국의 상징답게 처신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일본국 헌법 1조부터 8조까지 천황의 규정과 천황이 해야 할 의무, 권리가 적혀 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천황은 상징이니까 국가 행사에는 무조건 참가해서 **상징답게** 굴어야 하고, 권력은 없으니 내각이 정하는 것에 군소리 말고 도장만 찍으면 됨'이다.

외국의 입헌군주는 또한 정치적인 권한은 없더라도 정치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상당한 양의 사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영국 왕실의 맨 섬과 채널 제도 등으로, 이 지역은 왕실의 사유지로서 영국이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국이 되더라도 현 윈저 가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외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유럽의 입헌군주국의 왕족들이 갖고 있는 사유지와 별장들 또한 마찬가지.  
  
이에 비해 천황은 자신의 거주지인 고쿄를 제외하면 **아무 것도 없다.** 막말로 국회가 천황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당장에 무일푼 가난뱅이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일본 국회는 황족 품위 유지 차원에서 매년 황족들에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적지 않은 생활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일본 황실의 생활을 돕고 관리하는 궁내청 직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월급을 준다.

일본국 헌법(1947년 이후에 제정된 새로운 헌법, **평화헌법(平和憲法)**이라고도 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두는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사여(賜與/賜与)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7. 일본 공산당과의 관계**

**천황의 적통이나 신성성, 인간신, 그런 거 없다.** 일본 공산당은 과거 천황이 참석하는 국회 개회식은 물론 1990년 아키히토 덴노의 즉위식에도 불참하고 축사의결에 반대했다.  
  
**일본 공산당에게 있어서 천황제는 과거의 유물에 불과하고 없어져야 할 봉건 잔재일 뿐이다.**

1. **연호**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는 흔히 2019년, 2020년과 같은 서양식의 서력 연호를 사용한다. 이와 다르게 일본은 1989년 1월 8일 아키히토 일왕이 즉위한 때부터 퇴위한 2019년 4월 30일까지는 헤이세이 시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2019년 5월 1일 나루히토가 일왕에 즉위하면서 에리와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그 당시의 일왕이 즉위한 뒤 몇 년이 흘렀는가에 대한 시간적 개념을 사용한다. 전 세계에서 연호를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에서도 서력을 쓰지만 연호를 더 많이 쓰고 있으므로 연호가 바뀔 때 관공서 공문 등 각종 문서의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진다.